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하여

-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金　洪　植

I

濟州島方言 (以下 '本島方言'이라 稱함)에 있어서, 用言 活用에서 나타나는 特徵의 하나로 標準語에서는 그 語幹末이 閉音節(子音)로 끝남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語彙에 따라서는 開音節 即 母音이 添入된 母音型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이 母音을 用言의 '末音母音'이라고 하여 둔다.

여기서 그 한 例로 現行語/같다(如)/라는 語辭의 活用을 本島方言과 對比시켜 보면

<標準語>	<本島方言>
같다(如)	ᄀᆞᆮ다
같고	ᄀᆞᆮ고
같지	ᄀᆞᆮ지
같으니	ᄀᆞᆮ니
같으면	ᄀᆞᆮ면

等과 같이 活用되니, 標準語에서는 그 語幹이 一音節이며 閉音節型인 데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二音節인 開音節型으로 實現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即 위에 든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ㅡ(如)/ 語辭의 活用은 標準語에서 /같다, 같고, 같지, 같으니, 같으면/과 같이 活用되니, 그 語幹은 /같ㅡ/과 같이 閉音節(子音)로 끝나며, 이 語幹 /같ㅡ/이 /ㄴ, ㅁ/等을 頭子音으로하는 語尾와 連結될 때는 子音衝突을 防止하고, 音의 調和를 爲하여 母音 /으/가 挿入되는데, 이 母音을 現代文法에서는 調聲母音 또는 媒介母音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本島方言에서의 活用型은 /ᄀᆞᆮ다, ᄀᆞᆮ고, ᄀᆞᆮ지, ᄀᆞᆮ니, ᄀᆞᆮ면/과 같이 實現되어, 語幹 /ᄀᆞᆯㅡ/ 다음에 連結되는 語尾의 頭子音 種類 如何에 不拘하고, 母音 /으/가 添入된

二音節인 開音節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用言 活用의 實態는, 本島方言에서 모든 語幹에 一律的으로 나타나는 共通된 現象은 물론 아니며, 一部 語辭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本島方言의 用言 活用의 實態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가지 方向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가 생각된다.

첫째는 그 語幹은 /같ㅡ/과 같이 一音節型이며 이 語幹末에 母音 /으/가 添入된 것이니 이 母音은 調聲母音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는, 標準語에 있어서는 語幹 다음에 連結되는 語尾의 頭子音이 破裂音(ㄱ, ㄷ)일 때는 調聲母音이 不必要함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調聲母音을 取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一音節인 語幹末에 母音/으/가 새로 添入되어 第二次的인 語幹을 形成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로는 根源的으로 用言의 語幹은 二音節語인 開音節로 되어 있었으며, 後代에 내려 오면서 語幹末母音의 脫落에 依하여 一音節인 閉音節型의 語幹을 形成하게 된 것이다. 即 /같다(如) /語辭의 경우 /가트ㅡ/까지가 그 語幹이 되며, 따라서 第二音節의 母音/으/는 調聲母音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

本島方言의 用言 活用의 實態에 대해서, 以上과 같은 세가지 方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으니 이와 같은 現象은 本島方言의 特殊性에 依한 獨自的인 發達에 緣由된 音韻의 添加 現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國語史的인 通時性이 介在되어 있는 것인지를 考究하여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共時態로서의 本島方言의 言語 事實을 究明하는 데는 通時的硏究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即 共時態가 通時態에 依해서 究明되는 일이 많이 있는 까닭이다. 嚴密히 말해서 靜的인 言語 狀態는 存在할 수 없는 것으로 언제나 時間的인 變遷이 介入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겠다. 即 時間的으로 歷史性을 超越한 言語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現代國語에서 /닭(鷄), 개(犬), 밖(外)/等의 語彙는 그 語頭音이 平音인데, 合成語를 形成할 때, 어떤 特殊한 單語와 合成될 때에는 有氣音(aspirate)으로 나타난다.

암+닭→암탉　　수+개→수캐
안+밖→안팎　　조+쌀→좁쌀

이와 같은 現象은 現代語의 共時態만으로 볼 때는 그 理由를 說明하여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말의 한 버릇으로 돌려 버린다. 그러나 通時態를 通해서 究明하여 보면 그 까닭을 알 수가 있으니, 이것은 /암(雌), 수(雄), 안(內)/等의 語辭는 元來 그 末音에 /ㅎ/음을 內包하고 있는 말이며, 이 /ㅎ/음이 合成語를 이룰 경우에, 다음 語辭의 子音과 合하여지는 까닭

으로 平音이 有氣音으로 變하여진 것임을 알아 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言語의 通時的 考察은 共時態의 研究만으로는 說明되지 않는 事實에 대해서, 問題 解決의 方便을 提供해 주는 것이다.

本攷에서는 本島方言에 있어서의 用言活用에서 나타나는 語幹 末音母音에 대해서, 그 方言的 實態를 記述하고, 共時的, 通時的 考察을 通해서, 本島方言이 保有하고 있는 共時態가 國語史的으로 어떠한 特徵과 位置를 占하는 것인가를 窺視하여 보려 한다.

濟州島는 바다를 隔한 絕海 孤島라는 地理的 條件이 여기에 두터운 言語의 障壁을 形成케 하였으니, 本島가 그 言語에 있어서,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古層位를 保存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言語地理學的으로 보아 容易하게 首肯이 가는 일일진댄, 本島方言의 共時態가 보여 주는 暗示에 依據하여, 鮮初 또는 그 以前의 古代語의 樣相까지도 어느 程度 窺視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여 본다.

Ⅱ

2.1. 本島方言의 用言 活用에 있어, 標準語와 對比해서 볼 때, 標準語에서는 그 語幹 末音이 子音, 即 閉音節로 끝나는 單音節型임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語辭에 따라서는 語幹末에 母音이 더 添入된 母音型 即 開音節型으로 實現되는데, 이와 같은 方言 現象의 實態를 아래 列擧하여 보겠다.

標準語에 있어서의 語幹末 音節 子音의 種類에 따라 類別하여 方言 語彙의 例를 들어 본다.

가. 破裂音

ㄷ : 싣다 (載)

(A) 시끄다 시끄고 시끄지 시끄시 끄면

(B) 실르다 실르고 실르지 실르니 실르면

걷다 (捲)

거드다 거드고 거드지 거드니 거드면

쏟다 (注)

소드다 소드고 소드지 소드니 소드면

ㅌ : 같다 (如)

ᄀᆞᄐᆞ다 ᄀᆞᄐᆞ고 ᄀᆞᄐᆞ지 ᄀᆞᄐᆞ니 ᄀᆞᄐᆞ면

맡다 (任)

마트다 마트고 마트지 마트니 마트면

밭다 (吐)

바끄다 바끄고 바끄지 바끄니 바끄면

얕다 (淺)

야프다 야프고 야프지 야프니 야프면

짙다 (濃)

지트다 지트고 지트지 지트니 지트면

ㅍ : 깊다 (深)

치프다 지프고 지프지 지프니 지프면

높다 (高)

노프다 노프고 노프지 노프니 노프면

덮다 (覆)

(A) 더끄다 더끄고 더끄지 더끄니 더끄면

(B) 더프다 더프고 더프지 더프니 더프면

갚다 (報)

가프다 가프고 가프지 가프니 가프면

짚다

지프다 지프고 지프지 지프니 지프면

ㄲ : 깎다 (削)

가끄다 가끄고 가끄지 가끄니 가끄면

꺾다 (折)

거끄다 거끄고 거끄지 거끄니 거끄면

낚다 (釣)

나끄다 나끄고 나끄지 나끄니 나끄면

닦다 (磨)

다끄다 다끄고 다끄지 다끄니 다끄면

묶다 (束)

무끄다 무끄면 무끄지 무끄니 무끄면

볶다 (熬)

보끄다 보끄고 보끄지 보끄니 보끄면

섞다 (混)

서끄다 서끄고 서끄지 서끄니 서끄면

솎다

소끄다 소끄고 소끄지 소끄니 소끄면

엮다 (編)

여끄다 여끄고 여끄지 여끄니 여끄면

나. 摩擦·破擦音

ㅅ : 낫다 (癒)

나스다 나스고 나스지 나스니 나스면

앗다 (奪)

아스다 아스고 아스지 아스니 아스면

잇다 (繼)

이스다 이스고 이스지 이스니 이스면

있다 (有)

(A) 이시다 이시고 이시지 이시니 이시면

(B) 싯다 싯고 싯지 시니 시면

짓다 (造)

지스다 지스고 지스지 지스니 지스면

갖다 (持)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면

짖다 (吠)

주끄다 주끄고 주끄지 주끄니 주끄면

다. 通鼻音

ㄴ : 안다 (抱)

아느다 아느고 아느지 아느니 아느면

ㅁ : 심다 (植)

싱그다 싱그고 싱그지 싱그니 싱그면

라. 流音

들다 (擧)

드르다 드르고 드르지 드르니 드르면

살다 (燒)

사르다 사르고 사르지 사르니 사르면

날다 (飛)

나르다 나르고 나르지 나르니 나르면

마. 重子音

ㄲ : 긁다 (掻)

글그다 글그고 글그지 글그니 글그면

밝다 (明)

볼그다 볼그고 볼그지 볼그니 볼그면

맑다 (淸)

몰그다 몰그고 몰그지 몰그니 몰그면

ㄸ : 삶다 (烹)

솔므다 솔므고 솔므지 솔므니 솔므면

ㄽ : 짧다 (短)

즈르다 즈르고 즈르지 즈르니 즈르면

밟다 (踏)

볼르다 볼르고 볼르지 볼르니 볼르면

넓다 (廣)

(A) 널르다 널르고 널르지 널르니 널르면

(B) 넙다 넙고 넙지 너브니 너브면

얇다 (薄)

얄르다 얄르고 얄르지 얄르니 얄르면

ㅀ : 핥다 (舐)

(A) 할르다 할르고 할르지 할르니 할르면

(B) 할트다 할트고 할트지 할트니 할트면

ㅄ : 읊다 (吟)

을프다 을프고 을프지 을프니 을프면

ㅥ : 끓다

골르다 골르고 골르지 골르니 골르면

옳다

올르다 올르고 올르지 올르니 올르면

ㅆ : 앉다 (坐)

아지다 아지고 앗지 아즈니 아지면

ㅎ : 많다 (多)

만ᄒᆞ다 만ᄒᆞ고 만ᄒᆞ지 만ᄒᆞ니 만ᄒᆞ면

2.2. 以上 例擧한 것은 本島方言의 用言 活用中 標準語型과 同一한 것은 들지 않고, 다만 本島方言의 特徵的인 것만을 들어 보았으며, 그 語幹이 各기 다른 두 音으로 對立되어 갈린 雙形은 (A) (B)로 區分하여 表記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本島方言의 用言 活用에 있어서 語幹과 語尾사이에 母音(主로'으') 이 介在되는 現象은 모든 用言의 活用에 一律的으로 나타나는 現象이 아니라, 一部 語辭에 따라 實現되는데, 全体 用言 語彙數에 대해서 보면 極히 少數에 不過하다 하겠다. 그것도 解放以後 學校 敎育의 發展에 따라 標準語의 普及과, 交通手段의 發達에 따른 頻繁한 交流 關係와, 매스컴의 發達等, 社會相의 急激한 變遷 發達은 標準語化를 加速化시키고 있어, 本島方言이 지니는 特殊性은 急激히 衰滅되어 가는 趨勢에 있다.

前揭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島方言에 있어서 用言이 活用될 時 그 語幹末 子音과, 子音 語尾와의 사이에 標準語에서는 볼 수 없는 一聯의 母音이 介入되어, 標準語 같으면 單音節이요 閉音節로 끝남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二音節인 開音節語가 되어, 마치 그 語幹이 二音節로 생각되는 것이다.

여기 /닦다 (磨) /라는 語辭를 例로 들어보면

(標準語) 닦다, 닦고, 닦지, 닦으니, 닦으면
(本島方言) 다끄다, 다끄고, 다끄지, 다끄니, 다끄면

와 같이 活用되니 標準語에서는 그 語幹이 /닦—/이요, /—다, —고, —지, —니, —면/은 그 語尾다. 그러나 이 語幹 /닦—/이/ㄴ, ㅁ…/等과 같은 有聲子音을 頭音으로 하는 語尾와 連結될 때는 語幹 /닦—/과 語尾 /ㄴ, ㅁ/ 사이에 母音 /으/가 添入되는데, 이 母音은 語幹과 語尾間 두 子音의 連發을 避하게 하고, 音을 調和시키기 爲하여 添入되는 母音으로 보아, 現行 文法에서는 이 母音을 調聲母音, 또는 媒介母音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語幹 /닦—/이 子音語尾 /—고, —다, —지/等의 破裂音과 連結될 때는 子音이 서로 連接되어 子音衝突이 됨에도 不拘하고, 소위 調聲母音 /으/가 두 子音間에 挿入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金亨奎博士는 "「ㄱ·ㄷ·ㅈ」들 子音은 母音間에 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받거든·입더라도…」들 子音衝突을 하면서도 調母音을 가져 오는 것을 避했으나 이것은 破擦音 /ㅈ/까지에서 멈췄고, 다음 段階인 摩擦音 /ㅅ/에서부터는 母音間에 오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에 子音衝突을 避하여 調母音을 介入시켰던 것이다."[1]고 하여 破裂子音 語尾와 連結될 時는 調聲母音 /으/가 不要함을 主張하였다.

1) 金亨奎:「國語史硏究」, (서울:一潮閣, 1974), P. 24.

여기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前揭한 /닦다(磨)/ 語辭의 例에서, 그 活用形이 /다끄다, 다끄고, 다끄지, 다끄니, 다끄면/과 같이 實現되니, 標準語에서는 앞에 든 바와 같이 破裂音(ㄱ·ㄷ)을 頭音으로 하는 語尾가 올 때는 調聲母音이 不必要함에도 不拘하고, 本島方言에서는 語幹末 子音이 外破音(explosive)이 되면서 母音(으)이 添入되어 二音節인 開音節이 되는데, 여기서 語幹末에 添入되는 이 母音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問題된다.

이 경우에 標準語에서는 볼 수 없는 破裂子音 語尾 위에 介在되는 이 母音을 새로 介入된 母音으로도 볼 수 있으나, 筆者는 이 母音은 根源的으로 語幹에 屬하는 母音, 即 語幹 末音母音으로 보고자 한다. 그래서 標準語에서는 이 語幹 末音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單音節 語幹으로 변한였음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아직도 脫落 以前의 古形態를 部分的으로나마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3. 國語 用言의 語幹은 本來 二音節形인 開音節語이었는데 語幹 末音母音의 脫落으로 單音節로 변하여 왔음은 現行語의 實態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 用言 /가지다(持)/의 語辭는

(a)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면,
(b) 갖다, 갖고, 갖지, 가지니, 가지면,

과 같이 活用됨을 볼 수가 있으니, (a)에서는 그 語幹은 二音節形인 /가지—/임이 分明하나 이와 並行하여 活用 (b)와 같은 語形도 (a)形과 共時態로서 共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a)와 (b)를 比較할 때, (a)는 그 語幹이 /가지—/로 語幹 末音母音의 維持形임에 대하여 (b)는 (a)에서 語幹 末音母音의 脫落에 依하여 單音節인 /갖—/이 되었다고 볼 것이니, (b)는 (a)型에서 母音이 縮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語辭 本來의 語形은 末音 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二音節인 /가지—/로 볼 것이다.

本島方言에서는 위의 用言 活用에서 (a)(b) 兩形이 共時態로서 共存하고 있으나 活用(b)는 改新波의 影響에 依한 新形이며, (a)形은 本島方言의 固有形이라고 생각되니, 그 實現 頻度로 보아서도 優勢한 實情이다. 그래서 이 語辭의 本來의 語幹形은 末音母音이 維持되고 있는 二音節이며 開音節인 /가지—/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末音母音이 脫落되면서 單音節形인 /갖—/形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標準語에서 /슬프다(哀)/와 /읊다(吟)/의 두用言은 그 形態的 條件이 類似함에도 不拘하고 그 活用은

(a) 읊다, 읊고, 읊지, 읊으니, 읊으면

(b) 슬프다, 슬프고, 슬프지, 슬프니, 슬프면,

로 되는데, 그 語幹은 活用 (a)에서는 /읊—/, 活用 (b)에서는 /슬프—/로 나타난다. (a)에서는 語幹 /읊—/이 /—니, —면/과 같은 語尾와 連結될 때는 母音 /으/가 添入되어 /읊으니, 읊으면/과 같이 되는데, 이것은 現行 文法에서는 子音 連發을 避하고, 音의 調和를 爲해서 삽입되는 調聲母音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b)에서는 그 語幹이 二音節인 /슬프—/까지로 볼 수 있으니, (a)도 本來는 그 語幹이 /을프—/와 같은 二音節이었다고 推察되는데, 本島方言에서는 現今도 共時態로서 /을프—/型의 實現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言語地理學은 各 語形의 分布 狀態에서 主로 周邊에 分布 狀態를 보여주는 語形을 中央에 分布 狀態를 보여 주는 語形보다는 古形으로 規定짓고 있는 것이니, 本島 方言에 있어서의 分布 狀態를 言語의 底層으로 推定하여 볼 수 있음은 容易한 일이다. 따라서 本島 方言型 /을프—/는 標準語型인 /읊—/보다 底層位에 屬함을 推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a)나 (b)는 共히 本來는 그 語幹型이 二音節인 開音節로 끝나 語幹 末音母音을 維持하고 있었던 것이나, (a)에서는 일찌기 末音母音의 脫落을 일으켜 單音節이 되었음에 대해서, (b)에서는 現今까지도 末音母音이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本島 方言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b)는 勿論이요 (a)에 있어서도 /을프—/와 같이 語幹이 二音節이요 開音節形으로 實現되고 있음은, 本島 方言이 用言의 末音母音을 保存하고 있음이라 할 것이다.

2.4. 다음에 語族的 見地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心證을 굳힐 수가 있으니, 國語가 Altai語族에 屬하는 添加語族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國語文法은 Altai語族의 通性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Altai語族의 單語의 特徵은 多音節語이며 原則的으로 語末이 母音으로 끝나는 즉 開音節語다. 近者 國語와 同系라고 擧論되고 있는 日本語도 原則的으로 開音節語이니 日本學者 大野晋氏도 "日本語의 單語가 單純한 子音으로 始作되고 반드시 母音으로 끝난다는 것은 重要한 特徵이다."[2]라고 하였다. 그래서 語末에 받침이 있을 경우라도 單子音이 쓰일 程度이고 重子音은 안쓰인다.

이 重子音 廻避 現象은 特히 本島 方言에서는 顯著하다고 생각된다. 앞에 든 語例에서 보는 바와도 같이, 標準語에서 그 語幹이 重子音으로 끝나는 語辭의 活用에서 보면, 本島 方言에서는 全部 二音節의 開音節形이 되면서 重子音을 忌避하는 現象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標準語에 있어서의 重子音 語形을 本島 方言이 받아 들여 重子音을 解消시킨 것이 아니라, 重子音을 忌避하고 있는 本島 方言形이 年紀的으로 더 古層位에 屬하는 것이며, 標準語形인 重子音

2) 大野晋「日本語ノ起源」, (東京 : 岩波書店, 1974), P. 84.

維持形은 훨씬 後代에 發達된 것이라고 推測되는 바, 이것은 主로 第二音節 以下의 音節에 있어서의 母音 脫落으로 因해서 形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崔鶴根 敎授도 "李朝 初期 以後의 모든 言語 現象은 第二音節, 第三音節에서의 母音 脫落으로 因해서 語中 子音群을 形成하는 例를 許多히 發見할 수 있다."[3]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Altai語族이 갖는 特性으로 볼 때, 本島 方言의 用言 活用에 있어서의 末音母音 /으/는 根源的으로 語幹型을 構成하는 母音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本島 方言 /다끄—, 가트—, 노프—, 을프—…/等의 語辭에서 볼 때, 이것은 Altai語族의 音韻的 特性인 多音節語이며 開音節語라는 範疇에 들어 맞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2.5. 本島 方言의 用言 活用에 있어서 나타나는 語幹 末音母音의 現象과 그 實態에 對해서는 前述한 바이나, 이와 같은 末音母音이 本島 方言에서의 獨自的인 音韻의 삽입 作用에 依함인지 不然이면 通時性이 介在된 意義를 갖는 것인지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本島 方言이 차지하는 言語地理學的 與件으로 보아, 言語의 古層位가 本島 方言에 殘存하여 있으리라는 것은, 充分히 假想할 수는 있다고 하나, 이와 같은 地理的 事實 即 方言의 實態만으로서는 斷定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文獻的 事實과도 結付시켜 考察함으로써 비로소 그 眞相을 밝혀 낼 수가 있지 않을가 한다.

다음에 本島 方言에서 나타나는 語形이 文獻語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또 文獻語와 對比 考察하여 볼 때, 그 相互 關係는 어떠한 것인지를 究明하여 國語史的 位置와 特徵을 考究하여 보고자 한다.

2.5.1. 심그다(植), 시므다

現行語 /심다(植)/는 李朝 文獻語에서는 /심그다. 시므다/와 같이 二音節인 開音節로 나타나 用言 末音母音을 維持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正根을 심고미 ᄀᆞᆮ고 (正根如種植) <法華. 7. 129>
한 善根을 심거 (種諸善根) <金剛 : 上 · 32>
손소 桃李ᄅᆞᆯ 심구니 (手種桃李) <杜詩 · 10 · 7>
窓 밧긔 심ᄀᆞᆫ 梅花 <思美人曲>
善根을 시므디 아니ᄒᆞ야 <月釋 · 17 · 94>
植은 시믈씨라 <月釋 · 序 · 24>
菩提樹 ᄒᆞᆫ株를 壇ㅅᄀᆞ애 시므도 <六祖序 · 14>
토란 시므기를 힘써 <新救荒撮要 補遺方 · 15>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語幹形은 /심그—/와 /시므—/의 兩形을 찾아 볼 수가 있

3) 崔鶴根 : 「語中子音群 現象」, (國語學論文選, 서울 : 民衆書館, 1977), P. 208.

으니, 이들 두 語形은 純然한 共時的 雙生語이었는지, 不然이면 年紀를 달리한 것 即 두 語形 間에 通時性이 介在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國語史에서 볼 때, 語間에 介入되었던 中間子音이 後世에 내려 오면서 점차 脫落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即 言語에 있어 그 音響度 (sonority)가 가장 작은 破裂音(ㄱ·ㄷ·ㅂ)은 sonority가 큰 母音이나 〔r·l〕子音 사이에서는 〔g〕子音이 일찌기 高麗 時代에 없어져, 中央語를 그대로 記錄한 李朝 初期 言語에서 그 痕跡을 찾아 볼 수 없으나, sonority가 〔r.l〕 다음으로 큰 〔m.ŋ〕子音 다음에는 李朝 前期 言語에서는 그 痕跡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即 中間子音〔g〕은 sonority가 가장 큰 音 사이에서부터 먼저 弱化 脫落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李朝 文献語 /심그ㅡ/ /시므ㅡ/도 共時態로서의 雙生兒가 아니라 /심그ㅡ/는 中間子音〔g〕가 脫落되기 前의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며, 다음에 /심그ㅡ/의 語間 /ㄱ/音이 弱化 脫落되어 형성된 語形이 바로 /시므ㅡ/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文献에서 /심그ㅡ/ /시므ㅡ/의 兩形을 보여 줌은 共時態로서의 並存을 意味한다기보다는, /심그ㅡ/형에서 /시므ㅡ/형으로 交替되어 가는 過渡期임을 示顯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中間子音〔g〕音의 維持 現象들이 아직도 古語 方言圈에 남아 있는 事實과 아울러 생각할 때, /심그ㅡ/형이 /시므ㅡ/형 보다 古形임을 推察할 수가 있겠다.

다음에 現行 標準語形인 /심ㅡ/은 이/시므ㅡ/형에서 그 末音母音인 第二音節/으/ 母音의 脫落에 依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런데 本島 방언에서는 前揭한 바와 같이, 그 活用이 /싱그다, 싱그고, 싱그지, 싱그니, 싱그면/으로 實現되니, 그 語幹形은 /심그ㅡ/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文献語 /심그ㅡ/형에서 第二音節 頭子音 /ㄱ/의 逆同化 現象으로 /싱그ㅡ/형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本島 방언형 /싱그ㅡ/는 文献語形 /싱그ㅡ/와 그 始原이 같음을 알 수가 있으니, 本島 方言은 國語의 古層位에 屬하는 中間子音 〔g〕音을 維持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語幹 末音母音이 維持되고 있는 言語의 古層位를 維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5.2. 사ᄅ다(生)

現行語 /살다(生)/의 語辭는 文献語에서는 /사ᄅ다/와 같이 그 末音母音이 維持된 二音節形 開音節語였다고 생각된다.

高麗時代語의 唯一한 資料인 鷄林類事에 보면, 「存曰薩囉」라고 記錄되어 있어 이 「薩囉」는 /사ᄅ/의 表記일 것이며, 따라서 現代語形 /살ㅡ/은 高麗時代에는 末音母音이 保存된 /사ᄅㅡ/형이었음을 짐작 할 수가 있으며, 15世紀 文献에서도 이와 같은 語形의 자취를 찾아 볼 수가 있으니, 다음에 龍飛御天歌에서 그 語例를 들어 본다.

우리 始祖ㅣ 慶興에 사ᄅ샤 <龍歌·3>

白龍ᄋᆞᆯ 살아내시니 <〃·22>
오샤ᅀᅡ 사ᄅᆞ시릴씨 <〃·38>
어비아ᄃᆞ리 사ᄅᆞ시리잇가 <〃·52>
나랏 小民을 사ᄅᆞ시리잇가 <〃·52>
다시 사ᄅᆞ샤 爵祿ᄋᆞᆯ 주시니 <〃·77>
建義臣을 할어늘 救호ᄃᆡ 몯 사ᄅᆞ시니 <〃·104>
ᄆᆞᆺ間ᄃᆞ 지븨 사ᄅᆞ시리잇고 <〃·110章>
부러저히샤 살아자ᄇᆞ시니 <〃·115>
功臣ᄋᆞᆯ 살아 敎ᄒᆞ시니 <〃·123>

現代語에서의 /살—(生)/語辭는 15世紀 文献語에서는 自動詞로서는 /살—/이요 他動詞形으로는 /사ᄅᆞ—/로 그 語幹形이 各各 相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文章中 綴字上으로서는 自動詞形과 他動詞形이 共히 같은 /사ᄅᆞ—/로 表記되고 있으니, 그것은 自動詞의 경우는 語幹 /살—/에 調聲母音 /ᄋᆞ/가 連結되어 /사ᄅᆞ/형이 되었고 他動詞形은 元來부터 그 語幹形이 /사ᄅᆞ—/인 까닭에 綴字上으로는 語形이 같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兩者 사이에는 聲調의 差異가 있어 이 聲調로 自動詞와 他動詞를 區別하였던 것이다. 즉 自動詞는 上聲으로 傍点이 둘이 붙었고, 使役動詞는 平聲으로 傍点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筆者의 管見으로는 이 語辭의 語幹은 根源的으로 自動詞 他動詞의 區別 없이 다 같은 하나의 語形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推察된다 .그것은 言語는 古代에 올라갈수록 未分化의 狀態에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 語辭도 元來 自動詞와 他動詞의 區別 없이 그 語幹形이 다 같은 二音節인 /사ᄅᆞ—/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自動詞와 他動詞로서의 共通 語形 /사ᄅᆞ—/는 自動詞의 경우는 일찌기 末音母音이 脫落되어 /살—/형이 되었음에 대하여 .他動詞의 경우는 前揭 文献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世紀까지 末音母音을 保存하는 /사ᄅᆞ—/형을 維持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他動詞 /사ᄅᆞ—/도 終極에는 末音母音의 脫落을 일으켜 오늘날 보는 語幹形 /살—/이 된 것이라고 推察된다.

그래서 文献語 /사ᄅᆞ—/는 그 活用에서 副詞形 語尾 /아/와 連結될 때는 語幹 末母音 /ᄋᆞ/가 脫落되면서 語幹이 單音節인 /살—/로 된다.

사ᄅᆞ+아=사ᄅᆞ아>살아

이것은 現代文法에 있어서의 「르」變則 活用에 該當되는 것으로 이 밖에도 15世紀 文献語에 있어서 /ᄲᆞᄅᆞ(速), 다ᄅᆞ(異), 모ᄅᆞ(不知), 흐르(流)…/等의 語辭는 그 活用에 있어서 「르」 變則用言으로 母音 /으/가 脫落되었던 것이니, 이것은 一種의 末音母音의 脫落 現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싸ᄅᆞ—, 다ᄅᆞ—; 흐르—…/等 一聯의 語辭들은 現代語에서도 /빠르—, 다르—흐르—…/等과 같이 二音節 語幹形이 維持되고 있는 데 대해서 前揭 /사ᄅᆞ—語辭만은 語幹 末音母音이 脫落되어 單音節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15世紀 文獻語에서는 이 /사ᄅᆞ—/도 다른 /모ᄅᆞ—, 다ᄅᆞ—…/等의 語辭와 같이 語幹 末音母音을 維持하는 二音節語이었는데 그 後 語幹 末音母音의 脫落으로 單音節形인 /살—/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現代語에서 그 語幹 末子音이 /ㄹ/로 끝나는 單音節語는 前述한 바 /사ᄅᆞ—, 모ᄅᆞ—, 다ᄅᆞ—…/等 語辭와 같은 二音節인 開音節語이었던 것이 後代에 내려오면서, 語幹 末音母音이 脫落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 /모르—, 다르—, 흐르—, 빠르—/等의 語辭는 그 語幹 末音母音이 母音위에서만 脫落될 뿐 子音 위에서는 末音母音을 維持하고 내려온 것이라고 하겠다.

末音母音 脫落

우르다(泣)>울다 부르다(吹)>불다 여르다(開)>열다 나ᄅᆞ다(飛)>날다 거르다(掛)>걸다 드르다(擧)>들다

末音母音 維持

모ᄅᆞ다(不知)>모르다 다ᄅᆞ다(異)>다르다 오ᄅᆞ다(登)>오르다 부르다(呼) 흐르다(流)

本島 방언에서 /드르다(擧), 스르다(燒)/等과 같은 末音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語例를 찾아볼 수 있음은 本島 方言이 15世紀 또는 그 以前 時代 言語의 底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現代 文法에서의 소위「르」變則 用言이라는 것도 結局은 이와 같은 末音母音 脫落의 一環으로 나타나는 音韻 變化 現象에 不過하다 할 것이며, 語辭에 따라서는 오늘날 完全히 그 末音母音이 脫落되어 單音節語로 되었음에 대해서, /모르—, 다르—, 흐르—…/等과 같은 語辭는 아직도 末音母音을 維持하고 있으나 副詞形語尾 /아/ 위에서는 末音母音의 脫落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5.3. 앉다(坐)

現行語 /앉다(坐)/語辭는 그 語幹이 元來는 二音節인 開音節語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勿論 이 語辭가 訓民正音 以後의 文獻上 用例에서 찾아볼 수가 없음에 斷定을 지을 수는 없겠으나 高麗時代의 唯一한 言語 資料인 鷄林類事의 記錄을 보면 語幹 末音母音을 維持한 것으로 推察되니

「坐曰阿則家囉」

의 한 例를 찾아볼 수 있음은 /앉—(坐)/語辭의 語幹 推定에 貴重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阿則家囉」의 正確한 解讀이 容易한 일은 아니나, 아마「아지가라」乃至「아즈가라」의

表記일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語辭의 語幹 推定에 있어서 本島 방언은 이를 傍證하여 주는 좋은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中央部에서 이미 埋沒되어버린 言語 형태의 底層이 本島 방언에 남아 있을 可能性이 充分히 豫想되기 까닭이다. 標準語形인 /앉다/는 本島 방언에서는

아집서 (앉으십시오)
아지난 좋다 (앉으니 좋다)
아지키어 (앉겠다)
아지랭 ᄒᆞ라 (앉으라고 하라)
아지라 (앉아라)
아자 보라 (앉아 보라)

等의 語例를 談話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語幹은 /아지—/로 標準語 /앉— /에 대해서 아직도 語幹 末音母音이 維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지—/형과 더불어 /앉—/형도 共時態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이들은 雙形의 共存이 아니라, 年紀를 달리한 通時性이 介在된 것이라고 보며, /앉—/은 標準語로서 改新波의 影響에 依한 것이며, 本島 방언의 固有形으로서 그 特徵을 지닌 것이 아니기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그래서 本島 방언의 /아지—/형은 高麗時代 鷄林類事의 表記인 「阿則家囉(아지가라)의 /아지—/와 同一 語形이라고 推察되거니와, 이 方言的 事實은 近 千年間이나 時間的 격차가 있는 語形들이 오늘날 함께 共時態로서 使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勿論 이는 本島 방언에서 모든 語彙가 이와 같이 史的 位置와 特徵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一部 單語나마 이러한 古層位를 保存하고 있음은 本島 방언의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現行語 /앉다/는 文헌語에 있어서의 語幹 /아ᄌᆞ—/ 사이에 /ㄴ/이 添入되어 /안ᄌᆞ—/가 되었을 것이다. 國語에 있어서 二音節 以上으로 된 語辭에서 이 兩音節 사이에 子音이 첨가되는 現象을 찾아 볼 수 있으니

가시(妻)>각시　　더디다(投)>던지다
머추다(止)>멈추다　　ᄀᆞ초다(藏)>감추다

等의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節間에 子音이 첨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앉다/ 語辭는 다음과 같은 變遷을 거쳐온 것으로 생각된다.

아지(아ᄌᆞ)>안ᄌᆞ>앉

即 /앉다/ 語辭는 古形으론 그 語幹이 /아지(아ᄌ)/이고 여기에 子音이 첨가되어 /안ᄌ/가 되었으며 다시 語幹 末音母音이 脫落되어 現行語의 /앉—/이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2.5.4. ᄀᆞᆮᄒᆞ다(如)

現行語에서 用言 /같다(如)/는 그 活用이 /같다, 같고, 같지, 같으니, 같으면/과 같이 되어 그 語幹形이 單音節이요, 閉音節로 끝남에 대해서, 鮮初 文獻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語幹形을 推定하기가 좀 困難한 것같이 보인다.

東海ㅅ ᄀᆞᄉᆡ 져재 ᄀᆞᆮᄒᆞ니 <龍歌·6>
그 ᄯᅳ리 ᄭᅮ메셔 ᄃᆞ라옴 ᄀᆞᆮᄒᆞ야 <月印·二一·29>
샹녜 念ᄒᆞ야 ᄀᆞᆮᄒᆞ야 護持ᄒᆞ야 <法華·六·56>
始終이 이 ᄀᆞᄐᆞᆯ씨 <龍歌·79>
氏ᄂᆞᆫ 姓ᄀᆞᄐᆞᆫ 마ᄅᆡ라 <月釋·一·1>
하ᄂᆞᆳ버리 눈 ᄀᆞᆮ 디니이다 <龍歌·50>
世尊 ᄀᆞᆮ 가지이다 <月印·二·9>

以上 語例에서 볼 때 鮮初 文獻에서는 그 語形이 /ᄀᆞᆮᄒᆞ—, ᄀᆞᄐᆞ—, ᄀᆞ티, ᄀᆞᆮ/等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이 語辭의 語幹形 推定을 當惑케 한다. 여기서 이들 語形들이 形成된 經緯와 現行 標準語形 및 本島 方言形과의 相互 關聯에 대해서 推察하여 보고자 한다.

15世紀 文獻語 /ᄀᆞᆮᄒᆞ—/型은 그 語根이 /ᄀᆞᆮ/이며 여기에 /ᄒᆞ—(爲)/가 添加되어 /ᄀᆞᆮᄒᆞ—/形이 形成되었을 것이니, 國語에 있어 語根에 /ᄒᆞ—/ 添加型 語辭는 鮮初 文獻에서는 勿論 高麗乃至 新羅時代부터도 있어 오던 것임은 다음 文獻語例에서도 짐작이 간다.

時節이 모ᄃᆞᆫ 이리 만ᄒᆞ야 <月釋·一·16>
衆生ᄋᆡ ᄇᆞᄃᆡ만ᄒᆞ야 <釋譜·六·36>
님긊 말ᄊᆞᄆᆡ 긔 아니 올ᄒᆞ시니 <龍歌·39>
그내 더러우믈 슬ᄒᆞ샤 <능嚴·八·5>
栢史叱枝次高支好 <讚耆婆郎歌>
吾焉頓部叱逐好友音叱多 <常隨佛學歌>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ᄒᆞ다(多), 올ᄒᆞ다(是), 슬ᄒᆞ다(悲)/等은 /ᄒᆞ—/添加形 語辭이며, 그 語幹形은 /만ᄒᆞ—, 올ᄒᆞ—, 슬ᄒᆞ—/와 같이 開音節로 끝나는 二音節形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語形은 本島 方言에서 共時態로서 아직도 殘存하고 있음은 國語史的으로 매우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標準語에서는「만ᄒᆞ다>많다」와 같이 그 語幹 末音母音이 이미 脫落되어 單音節形으로 變하고 말았음에 대해서, 本島 方言에서는 아직도 鮮初 乃至 그 以前時代의 古形이 保存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다음에 /ᄆᆞᄆᆞ다/形은 /ᄀᆞᆮᄒᆞ—/의 第一音節 末子音 /ㄷ/과 第二音節 頭子音 /ㅎ/音이 結合(ㄷ+ㅎ)되면서 激音으로 變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語形은 本島 方言에서 實現되고 있는 共時態 /ᄆᆞᄐᆞ—/와 比較할 때 第二音節 母音 /·/가 /으/로 變하였을 뿐 全然 같은 形態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本島 方言이 15世紀 國語의 古形이 保存되고 있음이라 하겠다.

現行 語形인 /같—/은 /ᄆᆞᄐᆞ—/形에서 語幹 末音母音의 脫落과 /·/音의 變化로 單音節인 /같—/이 形成된 것이니 15世紀 文獻語 /ᄀᆞᆮᄒᆞ—/는「ᄀᆞᆮᄒᆞ>ᄆᆞᄐᆞ>ᄀᆞᆮ>같」과 같은 變遷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2.6.

다음은 比較的 觀点에서 볼 때 **Altai** 語族이 大体로 開音節語라는 것은 言語學者들이 考證한 지 오래거니와, 國語의 語辭는 開音節(母音)로 끝나기도 하고, 閉音節(子音)로 끝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 近接한 地域이요, 또 言語 系統上으로도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滿洲語와 日本語와 比較 對照해 보면, 이들은 開音節로 끝남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 現行 國語에서 用言의 語幹이 閉音節(子音)로 끝나는 語辭를 이와 對應한다고 생각되는 隣近語에서 들어 國語의 語幹形과 比較 對照하여 본다.

<國語>	<滿洲語>	<日本語>
닐다(起)	ili	
븕다(赤)	Fulgiyan	
잡다(執)	3afa	
갈다(磨)	xala	
깔다(敷)	xagli	
씻다(洗)	sisa	
쌓다(積)	saxa	
얻다(得)	ete	
걷다(捲)	hete	
붇다(注)	fusu	
빌다(祈)	firu	
긁다(搔)	kürkürа	kaku
굽다(美)		kupa-si

같다(如)	koto-si
좁다(狹)	seba-si
붙다(吹)	puku
말다(卷)	maku
걸다(掛)	kaku
멀다(遙)	paruka
업다(負)	ŏpu
얽다(結)	ŏru(織)
닫다(閉)	tŏdu
들다(擧)	turu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滿洲語와 日本語, 그리고 國語와의 對應 關係를 볼 때, 國語에서는 用言의 語幹이 閉音節(子音)로 끝남에 대해서, 滿洲語와 日本語에서는 그 語幹이 二音節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對應 關係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開音節 語形은 語幹末에 母音이 새로 添入되어서 形成된 語形인지, 不然이면 元來는 開音節 語形이었으나, 語幹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서 閉音節 語形을 이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金亨奎博士는 國語에 있어서의 用言 末音母音의 脫落 現象에 대해서 國語와 同系統의 言語(日本語, 滿洲語)들과 語彙를 서로 對應시켜 보고, 그 對應의 關係에 대해서는 Jespersen의 語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가는 傾向이 있음은 言語 一般에 나타나는 現象이라는 說을 引用, 原語에선 語末에 母音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音이 弱化 脫落되었다고 主張하고, 國語도 亦是 그와 같은 길을 걷고 變해 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日本語, 滿洲語와 對照해 볼 때, 그 傾向을 더욱 分明히 파악할 수 있음을 主張하였다.[4]

이와 같은 言語 一般에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거나, 隣近 同系語와의 對應 關係에서 볼 때, 國語의 古代 語形이 本是는 모든 語辭가 開音節 語形을 가졌던 것이, 後世에 次次 語幹 末音母音의 脫落으로 單音節인 閉音節 語形을 가지게 되었다고 推察된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는 部分的이나마 아직도 用言의 末音母音이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이 方言 現象은 通時性이 介在된 言語의 底層位를 보여 주는 國語史的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Ⅱ

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해서 本島 方言과 關聯하여 考察하여 본 바로써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을 지어 볼 수 있다.

4) 金亨奎 : OP. cit., PP. 82~84.

3.1. 用言의 語幹이 標準語에서는 單音節이며 閉音節로 끝남에 대하여, 本島 方言에 있어서 一部 語辭는 그 語幹이 二音節이요, 開音節形으로 끝남을 볼 수가 있다.

3.2. 이와 같은 本島 方言 現象의 實態는 言語地理學的으로 또는 文献 資料와 關聯시켜 考察하여 볼 때, 用言의 語幹末에 母音이 새로 介入된 것이 아니라 通時性이 介在된 國語史的 意義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文献을 通해서 考察하여 볼 때, 國語의 用言 語辭는 元來 二音節인 開音節語였음을 알 수가 있으며, 本島 方言은 15世紀 乃至 그 以前 時代의 古形態를 部分的이나마 維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4. 同系語와의 比較的 觀点에서 볼 때, Ural-Altai 語族이 開音節語라는 것은 言語學者들이 이미 考證한 바며, 國語가 Ural-Altai語族에 屬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面에서 充分히 考證된 바이므로 國語의 古代語는 開音節語였을 것이라 믿어지며, 따라서 本島 方言 形態도 言語의 古層位를 보여 주는 것으로 推定된다.

3.5. 그래서 國語의 用言은 根源的으로는 開音節語였던 것이 語幹 末音母音의 弱化 脫落으로 次次 單音節 語形으로 變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現象은 지금도 進行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는 部分的이나마 語幹 末音母音 脫落 以前의 語形 即 開音節 語形이 共時態로서 殘存함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言語의 底層으로서 本島가 갖는 地理的 特殊 條件으로 말미암아 言語의 古形態가 維持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Summary

On the End-Vowel of Declinable Wor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ialect of Jeju-do—

Kim Hong-sik

I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alects of Jeju-do in declension is that the dialects end in an open syllable, the type inserted by a vowel, while ending in a closed syllable or consonant in the common language. The vowel tentatively named the end-vowel this paper investigates.

II

The present dialects of Jeju-do retain the end-vowel of a declinable word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Korean.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high altitude of the language from the point of the linguistic geography.

The investigation of the dialectal forms of Jeju-do with relation to documentary records makes us understand that now the dialects of Jeju-do retain the old-form of the fifteenth century or before.

III

The study of the dialects of Jeju-do from the point of veiw of dialectlogy and diachronic makes us conclude that the end-vowel, which occurs in the stem of a declinable word, is not the sound addition but it has the diachronic meaning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n short, the declinable word of Korean has made into the closed syllable word because of the omission of the end-vowel, even if it is originally the open syllable word.